

광주, 수입차 22개 브랜드 모두 전시장 열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5년간 수입차 전시장도 150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뿐 아니라 그동안 수입차 시장에서 소외됐던 지역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고객층을 빠르게 넓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브랜드를 제외한 전 브랜드가 전시장을 갖췄다.

2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수입차 전시장은 364개에 달했다.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 40% 안팎을 차지하는 현대차 전시장이 총 824개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차 전시장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해볼 수 있다. 수입차 전시장은 2010년 10월 212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246개, 2012년 278개에 이어 지난해 3월에는 319개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수입차 총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1년 새 45곳의 전시장이 더 생겼다. 한 달에 4개꼴로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2010년 73개에서 올해

국내에 364개 전시장

최근 5년새 150곳 이상 늘어

수입차 대중화 확산 영향

113개로 늘었고 부산은 21개에서 26개로, 대구는 13개에서 17개로 각각 늘어났다. 광주는 지난달 말 GM 코리아가 캐딜락 독립 전시장을 열면서 수입차협회에 등록된 22개 수입차 브랜드가 모두 전시장을 갖췄다.

수입차 전시장은 그동안 수입차 불모지에 가깝던 지역까지 파고들고 있다.

제주의 경우 5년 전 1개뿐이었으나 6개가 더 생겨 총 7개가 늘어났다. 전시장이 한 곳도 없던 전남에도 2개가 생겼으며, 전북 역시 6개에서 15개로, 충남은 2개에서 9개로 각각 늘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도 3개에서 6개로 증가했다.

전시장뿐만 아니라 수입차 AS센터도 240곳에서 349곳으로 5년간 109곳이 더 늘었다. 수입차업체들은 최근 들어서도 전시장을 잇따라 확충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닛산은 지난 15일 전주에 공식 전시장을 개설했다. 닛산이 전북 지역에 전시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 전시장 개설로 전국에 18개 판매망을 갖춘 닛산은 연내 전시장을 22개, 서비스센터를 19개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이달 7일 해운대, 감전, 남천 전시장에 이어 부산 지역에서 네 번째로 화명 전시장을 오픈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수입차 수요가 전국에 걸쳐 늘고 있는 만큼 전시장과 AS센터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현대차 올 뉴 투싼

“직접 타보고 수입차와 비교 하세요”

현대차, 30대 대상 시승행사

광주 등 전국 7곳서 이벤트

수입차에 안방시장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 현대차가 자사 차량과 수입차를 직접 타보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승행사를 연다.

‘30대의 선택, 새로움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최근 수입차 시장에서 최다 고객층으로 떠오른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차는 30대 고객 336명을 선정해 이달 28일부터 7월23일 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광주 등 전국 7개 비교시승센터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30대(만 30~39세) 고객은 친구, 가족 등과 2인 1조로 시승조를 구성해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에서 6월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승 차량은 ▲올 뉴 투싼과 폴크스바겐 티구안 ▲제네시스와 BMW 520d, 528i, 벤츠 E300 ▲i30와 폴크스바겐 골프 등이다. 참가 신청 때 시승센터별 운영 가능한 차종과 희망 시승일을 선택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와 수입차 사이에서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현대차의 높은 상품성을 알리려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차 제네시스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된 중국형 ‘올 뉴 투싼’.

<현대차 제공>

세계 자동차업계 ‘맞춤형 차종’으로 中 공략

현대차, 중국형 ‘올 뉴 투싼’ 공개

기아차, 상하이 모터쇼서 K5 첫선

급성장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세계 자동차 업계가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형 모델 출시에 적극적인 글로벌업체로는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개막한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형 ‘올 뉴 투싼’을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에 출시된 ‘올 뉴 투싼’을 중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것으로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올 뉴 투싼은 차량 전면과 후면의 하단부가 넓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디자인됐으며 그물망 모양(메시)의

라디에이터 그릴로 대담하고 세련된 모습을 갖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중국형 올 뉴 투싼은 현지 도로환경 등에 맞게 국내 모델보다 지상고(노면과 차 밑 바닥의 간격)가 10mm 늘어났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중국형 신형 쏘나타(LF쏘나타)도 출시했다.

중국형 신형 쏘나타는 2.0 MPI, 2.4 GDI, 1.6 터보 GDI 등 총 3종류의 엔진으로 출시되며 올 뉴 투싼과 마찬가지로 국내 모델보다 차체 높이를 10mm 높인 것이 특징이다. 차량 앞쪽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국내 판매 중인 신형 쏘나타의 가로바 형태에서 그물형으로 바꾸는 등 화려함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대표적인 중국 현지 전략형 모델로 출시 8년째인 ‘위애둥’은 아반떼HD의 차체 크기를 늘리고 디자인

을 화려하게 변형하며 현지인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적용해 월 1만대가량 팔리고 있다. 신형 아반떼(MD)를 현지에 맞게 개조한 랑둥은 위애둥과 베르나에 이어 3번째로 20만대를 넘긴 모델로 자리 잡았다. 현대차의 중국형 모델은 이 밖에도 베르나, 밍투가 있다.

기아차도 K2, K4를 내놓은 바 있으며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에 첫선을 보인 신형 K5의 현지형 모델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 성공 요인의 하나로 적극적인 현지 전략 차종의 투입을 꼽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은 물론 현지 도로여건, 기후, 정치·경제·문화적 배경 등의 여건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 외에는 닛산의 중형 세단 라니아가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모델로 주목받았다. 카를로스 곤 닛산 최고경영자는 모터쇼에서 “중국은 닛산에 특별한 시장”이라면서 라니아에 대해 “다른 차들과 달리 중국의 젊은 층을 위해 만들어 진 차”라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코롤라와 레빈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국용으로 개발해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했다./연합뉴스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주행중 차체 떨리면 타이어 밸런스 조정

Q) 자동차 주행 중인데 차가 떨리네요.

차가 떨리거나 스티어링 휠이 떨리면 타이어 밸런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면 타이어 편마모는 물론 안전운전도 위협할 수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 센터 제공>

A) 차를 오래 주행하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휠 얼라이먼트가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스티어링 휠을 놓고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해야 하고, 시속 80~100km 이상 운행시 차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p>광주선불폰·중고폰</p> <p style="font-size: x-small;">북구 중흥동 376-7 동부교육청 건너편 신용불량, 통신연체, 무조건 개통 가능 선불 1만 충전시 2만원추가충전+유심카드 무료</p> <p style="font-size: x-small;">☎010-3070-8309 카톡 conta0206</p>	<p>동양철학원</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 style="font-size: x-small;">☎062)224-7687, 010-2611-7687</p>	<p>천수사백마장군</p> <p style="font-size: x-small;">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시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허길배 ☎010-2828-2008</p>	<p>송하한정식</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p> <p style="font-size: x-small;">☎062)225-9278</p>
<p>토담</p> <p style="font-size: x-small;">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김광수 ☎062)954-1333</p>	<p>오리백년두암직영점</p> <p style="font-size: x-small;">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닭담, 오리 장어탕</p> <p style="font-size: x-small;">☎062)401-5253</p>	<p>일등모바일</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p> <p style="font-size: x-small;">☎010-4655-9689</p>	<p>아워홈테크</p> <p style="font-size: x-small;">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K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쌍크대 불박이장</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김창두 ☎010-6635-7224</p>
<p>광주화랑</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박중환 ☎062)232-4784</p>	<p>박당화랑</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광산동 56-1 (번지시장상실옆) 부대찌개, 철판구이</p> <p style="font-size: x-small;">점장 최은진 ☎062)222-9290</p>
<p>똥이레</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찞不理, 붕장어, 사브사브, 돌관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윤영희 ☎062)234-7949</p>	<p>고전방</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광주척추교정원</p> <p style="font-size: x-small;">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 전신경락</p> <p style="font-size: x-small;">☎010-8827-7799</p>	<p>시골식당</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삼겹, 오리로스, 생선매운탕, 회무침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조공숙 ☎062)227-4565</p>
<p>27번가</p> <p style="font-size: x-small;">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구)동구청 뒤 훈연바베큐, 기계떡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p> <p style="font-size: x-small;">☎062)223-2727</p>	<p>토산철학원</p> <p style="font-size: x-small;">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직영, 개명, 시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 style="font-size: x-small;">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